

# 달걀 생산용 토종닭, 농가 보급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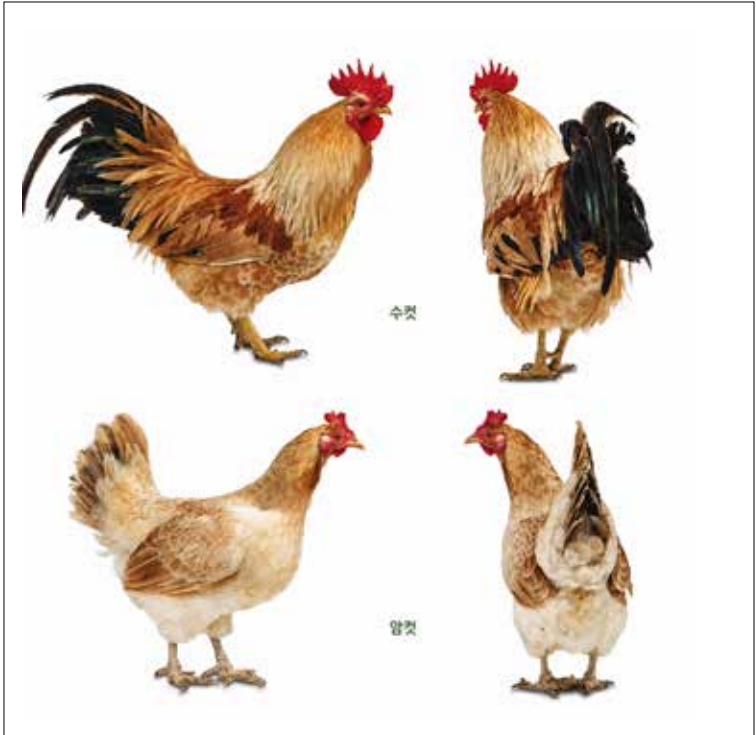
## 개발 마친 산란용 토종닭, 민간 씨닭 생산·농가 보급 추진

농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 산란용 토종닭을 활용해 프리미엄 달걀 생산·유통체계 구축에 나선다. 고기용 중심이던 토종닭의 활용 범위를 달걀 생산으로 확대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한국토종닭협회와 씨닭 공급망을 마련하고, 경북 영양군과 농가 사육부터 달걀 유통까지 연계해 산란용 토종닭 산업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토종닭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여러 계통을 단계적으로 교배하고 산란능력을 검정해 달걀 생산에 적합한 교배 방법을 확립했다.

사육시험에서는 산란용 토종닭의 최고 산란율이 96%로 나타났다으며, 생후 64주에도 70% 이상의 산란율을 유지했다. 평균 달걀 무게는 56g으로 시중 유통 기준 1(대란) 규격에 해당한다. 달걀 성분 분석에서는 일반 갈색 달걀보다 노른자 비중과 단백질포화지방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교배활용 순계 재래종 황갈색

농진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씨닭 공급부터 사육, 품질관리, 유통까지 이어지는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프리미엄 달걀 시

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토종닭협회와는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씨닭을 생산·공급할 거점 농장 선정과 운영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 국립

축산과학원은 산란용 토종닭 종자와 사육 기술을 지원하고, 협회는 거점 농장 선정과 생산농가 조직화, 유통망 확보, 공동상표 개발 등을 맡는다.

경북 영양군은 산란용 토종닭을 지역의 새로운 소득 품목으로 육성한다. 2030년까지 소규모 산란계 농가 50호를 육성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달걀을 선별·포장해 출하하는 공공형 유통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올해부터 농가 현장 실증을 통해 생산성·경제성·달걀 품질 등을 검증하고 표준 사육기술과 품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란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도 토종닭 달걀의 고유 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품종 개량도 추진한다.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이번 개발한 산란용 토종닭을 실제 농가 생산과 소비시장으로 연결하는 단계”라며 “씨닭 생산부터 농가 사육과 달걀 유통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보급체계를 마련하고 생산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온열질환 예방키트’ 호응

### 축산농가 온열질환 예방키트 만족도 ‘최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위생방역본부)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고령 축산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온열질환 예방 안전지킴이 키트’(이하 키트)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일 밝혔다.

위생방역본부는 지난 8월 동아오츠카(주)와 협업하여 온열질환 예방키트 4,000개를 제작하여, 가축방역사를 통해 축산종사자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키트를 받은 축산종사자(2,966호)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052명의 축산종사자가 응답해 35.5%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종합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6점(100점 환산 시 97.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생방역본부의 온열질환 예방키트 지원사업에 대해 축산종사자들이 크게 만족하

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물품 품질·실용성, ▲예방수칙 실천 도움, ▲지속 지원 필요성 등 주요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생방역본부는 가축방역사가 농가를 방문해 수분 섭취와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직접 안내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온열질환예방 노력

을 지원하였다.

김정희 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폭염 등 재난 상황에서 축산종사자를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위생방역본부는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 축산종사자 등을 세심하게 살피고,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영란 기자**  
yunglan528@hanmail.net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공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권 존중 문화 만든다

### 장애인식개선 교육으로 존중·배려 문화 확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위생방역본부)는 9월 29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본부장 및 본부·도본부·사무소 관리자 66명을 대상으로 ‘2026년 관리자 4대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조직을 이끄는 관리자의 인권 감수성과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정착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교육내용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과 장애인식개선을 비롯

해,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기준, 주요 사례 및 대응 절차 등으로 관리자들의 이해를 높여 조직 내 갈등과 인권침해 요소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 축산환경관리원, ‘동물복지 농장 체험관’ 운영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 이하 관리원)은 10월 2일(금)부터 3일(토)까지 서울 성수동 힐테이 블에서 열리는 ‘2026 동물복지 인증 페스타’에서 농장동물의 사육환경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동물복지 체험관’을 운영한다.

관리원이 운영하는 체험관에는 소·돼지·닭의 실제 사육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물과 체험 콘

텐츠를 마련해 관람객이 농장 동물의 특성과 습성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소의 생활환경과 행동 특성, 돼지의 탐색 행동, 닭의 회 구 조물 이용 등 축종별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체험하고, 가축이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동물복지에 왜 중요한지

를 알기 쉽게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체험관에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와 인증마크 등을 함께 소개해 시민들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etimes.com

## 한돈자조금, 한돈데이 기념식 성료

### ‘한돈 파트너십’ 10개사와 미래 비전 공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홍, 이하 한돈자조금)가 10월 1일 한돈데이를 맞아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 살롱에서 ‘2026 한돈데이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돈자조금과 대한한돈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차관, 하림 김홍국 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또한, 한돈홍보대사 안성재 셰프, 가수 남규리, 한돈 명예홍보대사 김용필을 비롯한 한돈 명예홍보대사, 축산 관련 단체 및 언론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돈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미래세대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주역들을 조명하는 한편, 소비자 접점 확대를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선보이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한돈데이는 매년 10월 1일, 우리 일상에서 한돈을 사랑하고 즐겨주시는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돈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날이다.

한돈자조금은 이날을 통해 한돈농가와 산업 관계자들의 노력은 물론, 오랜 시간 한돈을 아껴주고 사랑해준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민과 함께 한돈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는 한돈 명예홍보대사인 가수 김용필의 사회로 막을 올렸다.

이후 한돈 미래인재 장학금 수여와 한돈산업발전기금 협찬사 감사패 전달, ‘2026 한돈인대상’ 시상식이 진행되며 한돈산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공로를 조명했다.

한돈의 가치와 매력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명예홍보대사 위촉 및 공로패 수여식도 이어졌다.

이날 한돈자조금은 가축분뇨 액비 규제 완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한돈산업과의 정책 소통 강화에 힘쓴 문금주 국회의원을 한돈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또한 ‘삼겹살송’ 음원을 통해 한돈 소비 활성화에 기여한 가수 남규리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남규리는 이어진 축하공연으로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행사 후반부에는 한돈자조금 이기홍 위원장

의 기념사를 통해 한돈데이의 의미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미래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기홍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돈데이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들의 한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한돈농가와 산업 관계자들이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한돈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한돈자조금은 이번 한돈데이 기념식을 시작으로 ‘한돈으로 더 가까워지는 100일’을 이어가며 전국적인 한돈 할인판매, 지역축제 연계 소비촉진, 한돈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한돈을 사랑해주시는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한돈의 우수성과 한돈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이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etimes.com

# 도매시장 거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경매·입찰**  
품목별로 정해진 시간에 공개적·경쟁적 거래를 통하여 수급사정을 반영한 가격에 낙찰



**정가매매·수익매매**  
출하자와 구매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조건(가격, 물량 등)을 기초로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거래를 주관



**전자거래(상·물 분리거래)**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면 물건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송



**예약거래**  
도매시장법인과 상의하여 미리 예약거래 (3일, 7일, 한달, 시즌별 등)